

正 宗 大 王

高祖考顯宗大王諱

高祖妣明聖王后金氏籍清風

高祖父領敦寧慶恩院院君孝簡君臣

高祖母嘉林府夫人趙氏籍林川

高祖父司評贈領議政文道

高祖母贈貞敬夫人金氏籍安東

高祖父通德郎師昌

高祖母恭人金氏籍義城

曾祖考肅宗大王諱

祖考英宗大王諱

曾祖妣仁元王后金氏籍慶州

考莊獻世子諱

正宗大王

曾祖父郡守贈領議政遂城府

院君孝僖公宗悛

祖妣貞聖王后徐氏籍達城

曾祖母遂城府夫人金氏籍奉

Special Edition 1

족보 기록의 연원과

조선시대
족보

글. 권기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혈연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를 위해 선대 조상에서부터 자신까지 이어져 오는 혈통과 계보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록물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이를 '가계기록(家系記錄)'이라 통칭할 수 있으며 족보도 그 중 하나이다. 가계기록은 과거의 조상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인척 사이의 혈연적 연계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기억하려는 의식적 활동의 산물이다.

가계기록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그것이 담고 있는 계보관념이나 사회적 기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선 시대에 출현하여 널리 간행된 '족보'도 조선 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이었다. 족보는 그 편찬을 주도한 양반층의 신분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편찬 당시의 혈연관념이나 친족조직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즉 족보라는 기록물은 편찬자의 작성 의도나 목적이 어떻게 기록상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족보의 기재방식과 내용에 담긴 족보 편찬자의 의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족보 기록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하였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족보’의 정의

오늘날도 계속해서 편찬되고 있는 족보는 몇 가지 전형적인 편집 방식을 갖추고 있다. 첫째로 성씨와 본관(이하 '성관'으로 약칭)을 같이하는 '동성동본'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둘째로 맨 앞에 그 성관의 공통조상인 시조를 정점으로 하여 그 자손을 가능한 많이 수록하려 하고 있다. 셋째로 지면을 몇 개의 단으로 나누고 세대와 계보관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넷째로 수록 인물에 대해 생몰년이나 배우자, 관직, 묘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특징은 족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과거의 가계기록 중 어떤 것을 족보로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큰 참고가 된다.

조선 시대 족보를 지칭할 때 '족보'라는 단어 이외에도 종보(宗譜)·세보(世譜)·보첩(譜牒)·성보(姓譜) 등의 다양한 용어가 쓰였지만, 실제 족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표제의 명칭보다는 실제의 계보형태가 더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한국사상 최초의 족보는 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를 시초로 본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족보의 형태에 가까운 가계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화보』는 그 이전의 기록과는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성씨 및 본관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친족 구성원을 망리한 집단적인 가계기록이라는 점이다. 『성화보』의 경우 안동권씨의 시조 권행(權幸)의 자손을 파악 가능한 범위까지 수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된다. 둘째로 도표화된 계보기록의 형식을 갖추고 수록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성화보』는 조선 후기 족보만큼의 정교한 도표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족보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격식을 갖추고 있다.



01-02 현존하는 최초의 족보로 알려진 「안동권씨성화보」 표지와 내지(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족보가 갖는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족보의 집단성이다. 인류사상 모든 가계기록이 '친족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백성의 가족 관계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호적 자료는 개인을 기준점으로 하여 일정 범위의 조상과 가족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설사 먼 계보를 추적하더라도 한 개인의 직계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형태의 가계기록이 인류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 족보 편찬사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고 할 『성화보』에서부터 외관상 성관 전체의 공동기록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족보가 도입되던 시기인 15세기 조선사회에 성씨별 친족집단이 존재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한국사에서 족보와 친족조직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족보 이전의 초보적 가계기록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족보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왕실 등의 중요한 인물의 선대 계보를 금석문 등에 수록하는 전통은 고대부터 있어 왔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에서 시조 추모왕(주몽)이 천제(天帝)의 아들임을 밝히면서 그 후예인 광개토왕과의 계보관계를 명시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로 할 수 있다.

고려 시대에도 전기(傳記)나 행장(行狀), 묘지명(墓誌銘) 등 개인의 일대기에 관한 기록에서 주인공의 조상이나 자손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가록(家錄)'이나 '가보(家譜)'와 같은 가계기록을 참고하였다는 언급도 보인다. 또한 고려 성종대에 왕실의 족보를 관장하는 전중성(殿中省)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그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려우나 고려 시대에도 일정한 형식과 규모를 갖춘 가계기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왕실 자손에 대한 예우나 음서 제도의 시행 등의 국가 행정상의 필요에서라도 개인의 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고려 전기부터 한 개인의 4조(四祖: 아버지, 조부, 증조부, 외조부)를 기재하는 호적기재 양식이 있었고, 고려후기에는 이를 확장한 '팔조호구식(八祖戶口式)'도 등장하여 먼 조상에 대한 계보인식의 확대를 보여준다.

이처럼 고려 후기에 이르러 파악하고자 하는 조상의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의 방식이 한 개인의 직계 조상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며, 성씨 단위의 공동기록이라는 성격을 갖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에도 한 인물의 고조부까지 내외조부모 8쌍을 모두 파악한 팔고조도(八高祖圖)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후손 개인을 기점으로 하여 계보를 파악하는 전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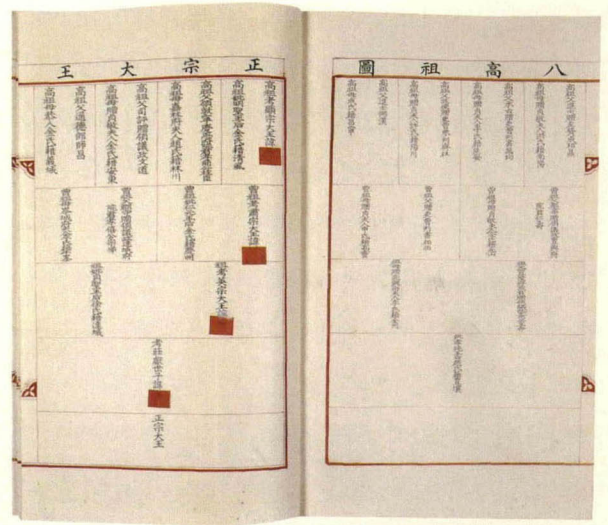
조선 전기에 들어와 한 인물의 직계조상을 성씨의 시조까지 단선(單線)으로 파악하고, 내외자손 또는 부계(父系) 자손을 4~8촌 범위까지 총망라한 형태의 '자손록'이 확인된다. 자손록의 초기 사례는 15세기에 다수 확인되는데, 안동권씨의 「문탄공내외손사촌회도(文坦公内外孫四寸會圖)」, 고성이씨의 「팔촌족보지도(八寸族譜之圖)」와 김종직(金宗直)이 작성한 「선공보도(先公譜圖)」 등이 있다. 이들 기록은 성씨의 시조와 자신까지의 혈연적 연속을 중시하고 후대에 성씨별 족보가 출현하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인 중심의 편제에 일상생활에서 긴밀한 유대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손 범위의 결속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이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들은 대체로 한 인물의 혈연 관계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혈연을 통해 승계되는 사회적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선 시대 족보와 달리 존조(尊祖)와 친친(親親) 등의 성리학적 가족 이념과 이를 통한 종법(宗法) 질서 확립 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계보기록의 형식 못지않게 '족보 이전'과 '족보 이후'의 가계기록을 구분 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족보의 출현과 계보관념

15세기에 들어와 '족도(族圖)'라는 명칭의 가계기록이 등장하는데, 족보와 달리 비교적 소규모의 가계를 도표 형식으로 간략히 표시하였고 한 장의 장지나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된 것이 많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도로 1401년의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가 있고 최근에 발굴된 『안동권씨족도』도 15세기 중반인 단종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족도의 제작에 뒤이어 15세기 후반에는 『성화보』와 같은 본격적인 족보가 출현하게 되는데, 서거정(徐居正)이 지은 이 족보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족보 편찬의 이념을 밝혀 놓았다.

내가 생각컨대 옛적에는 종법(宗法)이 있어서 소목(昭穆)의 차례



03 역대 조선 국왕의 내외조상을 고조부모 세대까지 파악한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

와 지서(支庶)의 구별을 자손이 비록 백세(百世)를 내려가더라도 상고(詳考)할 수 있었으나 종법이 폐지된 뒤로는 보첩(譜牒)이 흥하였다. 무릇 보첩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태어난 바 근본을 추심(推尋)하고 그 나뉘어 말미암은 바를 상세히 기록하여 지파(支派)를 분명히 하고 친하고 성긴 것을 분별하여 오히려 이로써 족히 은의(恩誼)를 돈독히 하고 윤리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처럼 족보의 등장으로 가계기록의 정리는 단순히 혈통을 증빙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법(宗法)의 실현을 통해 자신의 태어나게 된 근본인 조상을 기념하고 조상을 같이하는 친족들 사이의 은의를 바로잡는다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되었다. 15세기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교화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였고,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수용되면서 유교식 사당 제도와 제사의례 등이 과거의 불교적 가족의례를 대체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조선 전기의 족보도 종법으로 지칭되는 성리학적인 친족윤리의 수용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 이전에는 사족의 임관(任官)과 통혼(通婚)을 위한 혈통적 검증 목적으로 귀족층 위주의 족보가 만들어지다가, 송대(宋代) 이

후에 유교적 가족윤리 실천의 표상으로 종족 내부의 결속을 위해 기능한 근세적 족보가 사대부 사회에 일반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친족윤리에 입각하여 조상을 같이 하는 친족공동체, 즉 기문이나 문중의 유대를 위한 족보의 제작은 성리학적 친족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족보가 담고 있는 친족공동체의 실체가 당시의 조선 사회에 존재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조선 전기 족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5세기의 『성화보』나 16세기의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등의 조선 전기 족보가 외관상 ‘안동권씨’나 ‘문화유씨’ 같은 성관 전체의 집단 기록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 가족제도사에 관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16세기까지 부계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는 문중이나 가문 공동체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4촌에서 6촌 범위에 그치는 소규모의 족계(族契)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혼인 직후 남자가 처가에 거주하는 남귀여가(男歸女家)의 혼인 풍속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제사를 받드는 일도 아들딸 구별 없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가 성행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딸 사이에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균분상속(均分相續)이 법제화되어 있었다.

이렇듯 남녀의 혈통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혈연관념은 성씨를 같이하는 남계(男系) 자손으로 구성된 혈연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성관별 족보의 계보 형식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념과 현실의 괴리에 직면한 조선전기 족보의 편찬자들은 조선 전통의 친족관념과 중국에서 유래한 족보의 계보형태를 서로 절충하였다. 그 결과가 아들과 딸을 출생순으로 기재하며, 외손(外孫)의 외손까지 무제한으로 기록하는 전기 족보의 계보 형태이다. 실제로 『성화보』에 수록된 인원은 안동권씨보다 다양한 형태의 계보로 이어지는 외손, 즉 타성(他姓)의 비율이 90% 이상이 될 정도로 많았다. 조선 후기 동성만의 족보를 표준으로 여기는 관념으로 본다면, 주객(主客)이 전도된 모양새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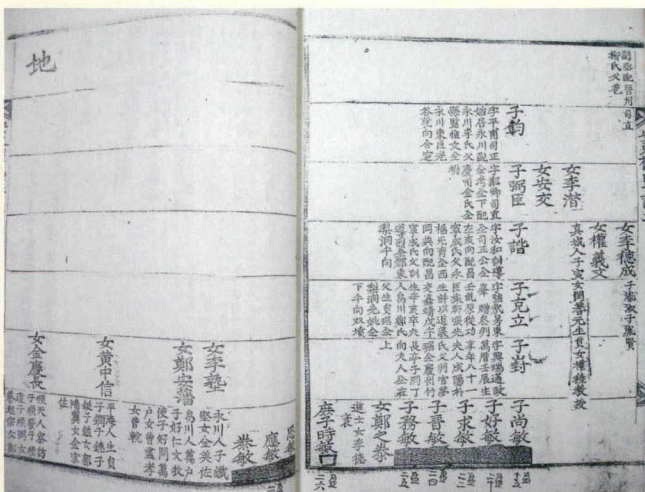
따라서 조선 전기 족보는 특정 성관 문중을 위한 배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 혈연과 혼맥으로 얽힌 집권관료층의 광범위한 유대관계를 반영하는 기록으로 보아야 한다. 『성화보』 서문에는 당시 조정에서 늘어서 있는 관료들 수천여 명이 모두가 권씨의 지파(支派)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성화보』와 『가정보』에는 이들 족보가 편찬되기까지 배출된 문과 급제자의 60%가 수록되어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족보 편찬에 참여한 인원들의 구성을 보아도 조선 후기와 달리 문중조직이 관여하기보다는 내·외손 관계의 지방관들이 관료사회의 연계망을 바탕으로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작업을 완수하는 양상이 보인다. 이렇게 조선 전기 족보에 수록된 방대한 인원이 하나의 배타적 결속력을 갖는 친족집단을 이루고 있었다기보다는, 족보편찬자들이 관념적으로 떠올린 ‘상상의 가족공동체’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족보와 양반사회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관별 문중조직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이다. 이때부터 족보편찬자들은 이전 족보에서 나타난 ‘형식과 실질’의 괴리, 즉 성관별 족보에서 외손이 다수 기재되는 방식을 불편하게 여기고, 실질적인 동성(同姓)만의 족보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손은 족보에서 점차 삭제되었고 성씨를 이어받는 아들을 중시하여 자녀의 기재순위도 선남후녀(先男後女)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조선전기 족보의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타족(他族)’으로 규정되어 배제됨에 따라, 족보의 수록 인원

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시조와 성씨가 같으면 몇 세대가 지나도 '백세지친(百世之親)'이라는 관념에 따라, 타성이 배제된 대신에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동성(同姓)이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기 족보는 동성과 타성을 크게 구별하지 않은 대신 유사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류(同類) 계층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후기 족보는 타성을 배제한 대신 수록된 인원의 계층적 다양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로는 향촌의 한미한 사족이나, 부계 이외의 혈통상의 하자로 제대로 동족 취급을 받지 못하던 서얼(庶孽), 그리고 단순 행정실무자로서 사족에게 차별을 받아온 이서층(吏胥層)이 수록된 족보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유대감 속에서도 신분 차별은 엄존하고 있었다. 서얼의 경우 이름 앞에 '서(庶)'라는 글자를 명시하고 기재순위나 용어 등에서도 차등을 두어 적파(嫡派)와는 확연히 구분되도록 하였고, 향리층도 유사한 차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서얼이나 향리, 의관(醫官)이나 역관(譯官) 등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은 양반 주도의 족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탈하거나 별도의 가계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04 조선 후기 족보에서의 '서자(庶子)' 표시 ('안동권씨후갑인보, 1794년')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의 하나로서, 신분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자손을 포용해야 한다는 동족 이념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족보는 기본적으로 양반 혹은 관료 지향의 기록이라는 성격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족보에 수록된 인물의 기재사항을 보면 관직 진출이나 문학·덕행 등 주로 양반층의 가치관에 비추어 명예로운 사항만을 담고 있으면서, 농업이나 상업 등 실제 생계를 위해서 종사한 '직업'을 충실히 담고 있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신분사적으로 양반이 주도한 족보의 특성 때문인지 현존하는 절대다수의 족보는 '양반 족보'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족보 편찬자들에게 자손이 아닌 자들이 국역(國役) 등을 피하기 위해서 양반 족보에 모록(冒錄)하는 현상이 족보 편찬자들에게 처치 곤란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족보의 사회적 기능이 커지면서 계보기록의 진위(眞僞) 여부가 더욱 문제시된 것이다. 근대 이후 양반 사회가 무너지면서 족보에 등재되는 인물에 대해 조선 시대 양반사회가 수행하던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양반 족보'의 일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양반 신분의 실질적인 의미가 사라진 일제강점기에 족보 간행이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은 일종의 역설이라 하겠다.

족보는 호적과 같은 공문서가 아니지만, 양반 위주의 사회에서 공문서에 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양반'이라는 신분이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처럼 법제적으로 엄밀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반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족보라는 기록을 역사적 기록으로 다룰 때는, 어디까지나 양반 사회의 가치 지향에 따라 남에게 알리거나 후세에 전하고 싶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걸러 내거나 부풀린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N**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 명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족보와 조선사회: 15~17세기 계보의식의 변화와 사회관계망』,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공저,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역음), 『한국족보의 특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공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등이 있다.